

(제목 없음)

작성일: 2011. 5. 20(금) 새벽 2:30~3:05

작성자: 고술화 (부산 주빛 합봉교회)

[중고등부 교사들과 함께 1주일 동안 철야 산기도를
하던 중, 이날은 선생님과 전반기 때 함께 섭리를
뛰었던
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어 선생
님을 위해
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중에 선생님 영이 오
셔서
속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.]

* 선생님 말씀 *

사랑하는 자야,
오늘 네가 나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부르니
내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가 없구나.

사랑하는 자야,
내 몸이 너무 힘들구나.
몸이 10개라도 모자라구나.
내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,
무엇을 먹는지도 모르겠다.
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도
진정 내 심정 알고 기도하는 자 적구나.
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나
나에게까지 오는 기도가 적구나.
나는 지금 오직 너희 기도의 힘으로
은혜 받고, 성령 받고, 힘 받고, 사랑 받고 살고 있
는데
그 힘이 나에게 적게 전달되니...
그래서 주님도 선생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
적다고 말씀하시는구나.

나를 본 자가 더 뜨겁고 깊게 증거해야 된다.
그래서 전반기 때 나와 함께 역사를
뒀던 자의 말에 힘이 있는 것이다.
내가 예수님을 보았고 느꼈고 이 역사를 함께 뛰었
기에
누구보다도 주님을 증거함에 있어 힘이 있는 것이
다.

주님을 증거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
있어
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며
힘 있게 외칠 수 있는 것이다.

나를 본 자들, 나와 함께 역사를 뛰던 자들...
다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느냐!
세상 유혹에 빠져 나를 버리고 주님 등지고
무엇을 얻으려고 이 가슴 찢어지도록 피눈물 흘리
게 할까!
사랑하는 그들을 생각하면
나는 지금도 하염없이 눈물만 흐른다.
그리고 제자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죄로
죄송한 마음에 주님께 얼굴을 들지 못한다.

그러나 주님은 아픈 내 마음 다 아시고
나를 먼저 위로해 주시는구나.
내 마음을 어느 누가 알쏘냐!
내 아픔을 어느 누가 위로할쏘냐!
이 땅의 위로 받고자 땅을 내려다보니
그 위로의 힘이 참으로 적구나.
그래서 나는 고개 들어 하늘을 쳐다본다.
내 천부 하나님과 내 천모 성령 어머니와
성자이신 내 사랑하는 주님께
큰 힘과 위로와 사랑을 받고
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힘내어 일으킨다.

내가 이곳에서 무슨 낙이 있겠느냐?
무슨 희망 있는 삶이겠느냐?
내 사랑아, 빨리 나가고 싶다!
주님께 매일매일 기도했다.
나 여기서 내보내 달라고
눈물 흘리며 매일매일 애타게 간절히 간구했다.
그럴 때마다 주님 내 곁에서 함께 울고 계셨다.

주님께서 갯세마네 동산에서
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
피눈물 흘리시며
“이 잔을 거두어 달라”고 하셨던 마음에,
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크고도 큰 마음과
창조의 근본인 깊은 사랑을 깨달으시고
민족의 환난 속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
그 목숨 내놓으셨음을
더 깊은 그 심정과 하나님의 눈물을

나는 내 곁에서 눈물을 흘리시며
함께하신 주님을 보면서 더 깊이 깨닫고 알았다.

그리고 주님의 나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
깊고도 넓은 사랑을 뻗속 깊이 깨닫고
지금 이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고 있다.
오직 감사뿐이다. 오직 주님 사랑뿐이다.
시계처럼 변하지 않고 주님 사랑함을 한결같이 하며
살고 있는 내 모습을 느끼겠느냐?

(“네, 선생님! 느낍니다. 더 깊고 차원 높은 말씀으로
선생님께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절대적인 조건의
차원을
높이시며 사시는 것을 느낍니다.”)

그래. 시계처럼 변함없이, 꾸준히,
끝까지 사랑하고 모시고 섬기며
네 몸, 네 마음 다 바쳐 주님께 드려야 된다.
한 해만 참아 달라고 간구했던 그 약속,
주님께서 내 간구함을 들어 주셔서
2년 동안 죽도록 너희들을 주님의 재림에 깨우느라
앞만 보고 달렸다.

주님, 나에게 수고했다고 하시는구나.
이제 그날도 다 되었구나.
모두 다 깨어났는지 궁금하구나!
시대 말씀에 깨어나고, 재림에 깨어나고,
성령에 깨어나고,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깨어났는지
정말 궁금하구나.
나는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 있으니
세상 소식, 사랑하는 너희들 소식을 다 못 들으니
참으로 많이도 궁금하구나.
내가 나가서 보면 한눈에 다 알 수 있는데...
그래서 영적으로 투시를 한단다.

매일 매 순간 한시도 쉬지 않고
너희들에게 영광을 보내며 살고 있다.
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
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한다는 것이다.
사랑하는 자야,
나를 위해 더 깊이 기도해라.
나의 기도가 끊어지면

온 인류가 영적, 육적으로 힘들다.
기도를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
할 수 있도록 깊이 기도해야 된다.

어린 자와 나를 보지 못한 무덤 기간에 전도된 자
들에게
나를 보고 나와 함께 역사를 뛰었던 사연들을 얘기
해 주고
나와 웃고 울고 함께했던 사연들도 얘기해 줘라.
나를 더 가깝게 느끼고 사귄 수 있도록...
나를 알기 위해 더욱 몸부림치며 귀 기울이고
절대 소홀히 하지 말아라.

사랑한다. 진정 사랑한다.
모두들 사랑한다고 전해 다오.
안녕.